

전북 기업심리 · 5월 전망지수 소폭 상승

제조업 기준치 100 회복 · 비제조업 완만한 상승 원자재 가격 부담 확대... 수출 · 내수 불확실성 여전

전북지역 기업경기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체감경기 격차도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한 2026년 4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0.0으로 전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기준치(100)에 도달한 것으로, 기업들

의 경기 인식이 장기 평균 수준까지 회복됐음을 의미한다. 5월 전망지수 역시 98.2로 소폭 상승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심리지수 상승은 자금사정(+1.0포인트), 생산(+0.4포인트), 업황(+0.2포인트), 신규수주(+0.2포인트) 등 주요 항목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생산과 수주가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흐름을 뒷받침했다. 4월 생산BSI는 83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신

규수주 역시 78로 1포인트 올랐다. 다만 회복세 속에서도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매출은 감소했고, 설비투자 실행지수는 91로 6포인트나 하락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산성BSI는 70으로 3포인트 떨어지며 수익성 악화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이 같은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꼽힌다. 원자재 구입가격 BSI는 154로 급등하며 기업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월 대비 19.5%포인트나 증가했다.

반면 자금사정은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자금사정BSI는 79로 3포인트 상

승하며 기업 유동성은 일부 안정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 속에서 제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4월 비제조업 CBSI는 82.3으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으며, 5월 전망지수도 83.4로 1.6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쳐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북지역 기업경기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원가 상승과 투자 위축, 수익성 악화 등 구조적 제약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비제조업은 완만한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낮은 체감경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중기부, 참여기업 모집... 철강 · 알루미늄 18개 과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

다. 이번 사업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국제 탄소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

하는 기업과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출 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되며, 지정공모 방식으로 선발된다.

중점 지원 분야는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공정 개선 및 전력 저감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 등 3대 기술 영역이다. 총 26개 과제를 공모해 이 가운데 18개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자치도 · 바이오기업 9개사, '바이오코리아' 서 전북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기업들과 함께 국제 전시회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6'에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 9개사와 공동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산업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비즈니스 행사로, 최신 기술 동향과 협력 기회를 공유하는 자리다.

도는 행사 기간 '전북홍보관'을 운영해 지역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참가 기업은 합소아제약, 바스젠바이오, 바이오리올로지스, 나무숨, 제팻, 큐에이치바이오, 유스바이오글로벌, 주영바이오, 에어랩 등이다.

이들 기업은 코·호흡기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재생의료와 세포치료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6'에 도내 유망 바이오기업 9개사와 공동 참가한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기술 상담과 파트너 발굴이 함께 진행돼 실질적인 사업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와 공동으로 '호라이즌 유럽' 과제 기획 미팅도 열어 국제 공동연구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KIST 유럽연구소 내 바이오기술협력센터 개소 이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인재 양성, 공동 연구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오상근 기자

사과 신품종 전문생산단지 확대

농촌진흥청이 사과 신품종의 안정적인 보급과 시장 정착을 위해 전문생산 단지를 확대하고 국산 품종 보급률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특화 전문생산단지 확대 조성에 신품종 재배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와 협력해 군위 '골든볼', 안동 '갈로', 충주·포항 '이지플', 흥천 '컬러플' 등 지역별 특화 품종 중심의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 왔다.

생산자는 지역에 맞는 품종을 재배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업체는 공동 선별과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 지자체는 공동 브랜드 육성을 통해 지역 인지도와 농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사과 품종 보급률을 2025년 23.8%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끌어올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저지종 송아지' 첫 탄생

농촌진흥청 · 임실군, 협력 성과

농촌진흥청과 임실군이 추진해 온 저지종 도입 사업이 첫 결실을 맺으며 지역 낙농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임실군에 보급한 저지종 수정란을 통해 지역 농가 3곳에서 송아지 3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출생은 2023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저지종 사육 기반 구축 사업' 이후 처음 나타난 성과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저지종 생육과 수정란을 단계적으로 공급해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정란 생산용 저지종 생육 11마리를 보급했으며, 2024년과 2025년 각각 수정란 30개씩 총 60개를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는 수정란 이식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



된다. 전문가의 농가 방문과 상담을 통해 사양관리와 번식 관리 기술을 제공해 안정적인 사육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조용민 국립축산과학원장과 심민 임실군수는 지난 27일 농가를 찾아 저지종 사육 및 수정란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저지종 도입이 지역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제품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

국민연금공단, 동반성장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국민연금공단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소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1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등급 하락 없이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상생경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 133개 대상 기관 중 단 9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계량·비계량 평가와 협력업체 체감도 조사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상생결재 실적은 역대 최대 수

준으로 끌어올리고 상생협력금 출연액을 전년 대비 16.7%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11개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제 계약을 체결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지원도 눈에 띈다. 공단은 국민연금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과 인공지능(AI)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 밖에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 디지털 마케팅 교육, 협력사 대상 복지시설 개방 및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오상근 기자

어린이날 '팜타스틱 놀이터' 운영

농촌진흥청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농업을 주제로 한 체험형 특별행사 '팜타스틱(Farmtastic), 오감 만족 놀이터'를 농업과학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업과학관 1·2층 전관에서 진행되며,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운영된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으로는 밀짚모자

만들기, 곡물 마라카스 만들기, 모래정원 만들기 등이 마련됐으며, 현장에서는 꽃향기 방향제 만들기 등 육속수 팝콘 체험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대상 타투 체험 등 부대행사도 운영되며, 참여 후 온라인 후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을 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제공된다.

사전 예약은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며, 네이버에서 농업과학관을 검색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으로는 밀짚모자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